

鐵의 도시에 일군 '대물림' 서점문화

종업원출신이 2代째 사장된 포항 '경북서림'

‘鐵의 도시’ 포항에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포항시민을 흐뭇하게 해주는 서점이 있다. 서점종업원 가운데 서점발전엔 헌신적이었고, 그 세대에 맞는 서점경영전략을 갖고 있는 이에게 선풍 경영권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동 중앙동에 벌써 40년째 자리잡고 있는 경북서림이 바로 그 화제의 서점이다.

지금의 경북서림 대표인 김천섭씨(39)가 ‘사장자리’에 앉은 것은 87년의 일. 그 이전까지 김씨는 경북서림에서 꼬박 10년동안 근무한 성실한 서점직원에 불과했다.

“제가 사장으로 지목된 것은 86년 세모에 전무로 임명되어 서점경영을 위한 수습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1년 가까이 서점경영 전반을 위한 업무를 익히자 김태준 前사장에서 저에게 모든 경영권을 물려주신거죠.”

김태준씨가 이처럼 선풍 경영권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서점직원이었던 80년 경북서림의 창업자인 최영경씨에게 3년 동안의 ‘견습’을 거쳐 사장이 된 전력이 있기 때문. 최씨는 당시 현상유지의 소극적인 서점경영방식을 비판하고 대형화와 전문화로 성장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일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김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었다는 것. 시간의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경영인은 사라져가도 서점은 끊임없는 자기갱신을 통해 후대에까지 문화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창업자의 용단이 경북서림의 독특한 ‘대물림’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평이다.

창업자인 최씨가 붓점장사로 시작, 비록



김천섭씨

점방에 불과했지만 서점의 꼴을 갖추고 지금의 자리에 터잡은 것은 60년의 일. 따라서 ‘갯바람’이 일던 포항이 ‘씻바람’이 부는 제철도시로 발전하는 과정과 서점의 성장이 그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경북서림의 성장에 흥미로운 점은 경영권이 종업원출신 사장에 넘어갈 때마다 서점규모가 확장되었다는 점. 단층건물에 불과했던 경북서림이 2층규모로 확장된 것이 2대사장 김태준씨의 ‘치적’이었고, 이를 3층규모로 또 한차례 성장시킨 것이 3대사장인 김천섭씨의 공이다.

전체 매장규모가 75평에 이르는 경북서림의 경우, 포항시내에 있는 60여개의 서점들에 비하면 ‘큰형’뻘이지만 다른 지역의 대형서점에 비하면 중량급정도에 불과한 편. 대구가 인구면에서는 포항의 7배지만 서적 판매량에서는 무려 20배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서인구의 층이 그리



경북서림의 매장. 1, 2, 3층을 합해 75평이다.

두텁지 못한 현실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항안에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일반대학이 없다는 점과 일반교양서적의 주 독자층인 사무직여성근로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루 서점 이용자가 400~500여명 정도될 것이라는 김사장은 이들 가운데 대략 200명정도가 책을 사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경북서림을 찾는 까닭은 오랜 전통에 걸맞게 고준수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신문 등을 통해 신간정보를 입수한 독자가 서점에 와 그 책을 구입하고자 할 때가 가장 당혹스럽다고.

“교양서적이 아닌 다음에는 신간을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기는 지금의 유통구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좀더

빨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하루 속히 유통구조가 근대화되어야 지방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대째 경영인으로서 어느 정도 서점경영의 틀을 잡은 김천섭씨는 서점경영권 인계가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 깊은 곳에 그가 그렇게 되었던 자신의 직원 가운데 4대째 사장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고생하지 않으려 해 솔직히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자보다 물려주신 이들이 더 복이 많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써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경북서림을 더욱 발전시킬 인재가 언젠가는 4번째 사장이 되도록 저 자신이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권우 기자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90. 2. 10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 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어테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어테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 <셈야제>와 농부<마이어> 이야기—

- 주요목차 ●농부 <마이어>의 충격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현재 성경은 위서(偽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예수 탄생의 비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IBM 보오겔 박사의 증언
-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셈야제>

- 오다가 오시야 엮음 ●정우인 옮김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 신국판/242면/값 3,500원

시 어 사 대표전화 : (02)549-6817 FAX : (02)549-6816

전국책방과 지하철에 있습니다.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272-5871
을지서적 : (02)757-8991